



08-24 (통권 202호)
2008.06.20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유로지역(Euro area) 물가 급등
- 1/4분기 총외채 증가

경영 노트

- 전문비서의 활용법

사회 트렌드

- 엔큐(EnQ)

저널 브리프

- 은퇴자는 자원이다

洗心錄

- 세이공청(洗耳恭聽)

□ 유로지역(Euro area)* 물가 급등

-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유 가격 급등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3.7%를 기록함
 -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4월(3.3%)보다 0.4%p 증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1.8%p 증가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유럽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억제선(2%)을 넘어선 수치로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유로지역의 물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이 130달러를 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빵, 시리얼, 우유 치즈, 계란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서부의 흉수 피해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부셸(bushel)당 8달러를 넘어서는 등 식량가격까지 급등함으로써 국제적 인플레이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1/4분기 총외채 증가

- 한국은행(6월)의 발표에 따르면 1/4분기중 총외채는 4,125억 달러(3월말)로 전년말 대비 303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나, 외채 구조 및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안정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4분기 이후로는 조선업체 및 해외증권투자자의 선물환 매도와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압력 완화로 외채증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경상 GNI 대비 총외채 비율(48%) 등 외채구조는 모두 경제무국 수준의 하한에 미달한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외채비중도 60% 미만임

- 또한, 외채상황 평가에서는 2006~2007년중 외채증가는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증가와 아니라 대부분 장래의 수입에 바탕을 둔 차입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와는 다른 특성을 보임

*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

□ 전문비서의 활용법*

- 비서는 CEO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이며, 조직규모와 업무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전문비서의 수요 급증이 예상
 - 비서는 CEO가 만나야 할 주요 고객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인물로서 비서의 대응이 경영자와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사무자동화, 기업조직의 증대 및 업무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업무가 가능한 다기능 전문비서가 각광받음
- 비서 활용법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일을 던져주기, 과잉충성의 자제, 정보제공자로서의 활용, 승진, 입을 무겁게 하기 등 6가지가 있음

<비서의 6가지 활용법>

비서 활용법	주요 내용
따뜻한 말 한마디	· 비서는 동반자이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 · 비서들은 CEO의 관심이 큰 격려가 됨
일을 던져주라	· 훌륭한 비서는 CEO의 관리와 훈련에 의해 만들어짐 · CEO는 일을 쥐서 비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함
과잉충성은 자제시켜야	· 비서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고객에 대한 불친절은 금물 · 비서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고객과의 전화응대로서 친절이 필수
정보제공자로서 활용하라	· 비서는 의사소통의 매개역할과 정보전달의 창구역할을 해야 함 · 비서는 정보검색, 참고자료 준비 등 훈련이 필요함
잘하면 직위를 높여줘라	· 비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기에 일을 잘하면 대우해 주어야 함 · 비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적절한 시기의 승진도 필요
입은 무겁게	· 비서는 상사에 대한 비밀유지가 기본업무 · 비밀유지를 위해 CEO는 비서와의 두터운 신뢰감이 필요

- 전문비서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요구에 맞게 비서 채용의 기준도 변해야 하며 비서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함
 - 전문비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서채용의 기준은 외모, 성별, 나이 등 보다는 인성, 경력 및 전문성 위주의 틀로 바뀌어야 함
 - 비서에 대한 CEO의 배려는 비서에게 매우 큰 힘이 되기에 CEO는 항상 비서에게 명확히 지시하고 자상한 태도와 권한이임을 유지해야 함

* <Economic Review, 2008.06.10>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엔큐(EnQ)

- ‘편 시대’에 높은 엔큐(EnQ)는 성공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음
 - 엔큐란 엔터테인먼트 지수(Entertainment Quotient)의 준말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능력으로서, 단순히 웃기는 유머보다 개념의 범위가 넓음

- 최근에는 자신의 엔큐를 활용해 좁은 취업문을 넓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고, 엔큐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일과 소속감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식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재미, 보람 등 행복과 관련된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짐
 - 기업들이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엔큐가 높은 지원자들을 선호하게 됨
 - 2000년대 중반부터 ‘편’과 ‘엔터테인먼트’를 가르치는 연구소와 전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음
 - 일본에서는 ‘활기 프로듀서’라는 신종 직업(동료를 웃기고 다니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함

- 설문조사에서도 취업시 엔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10명 중 7명 이상이 ‘엔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매우 큰 영향’ 15.7%, ‘다소 큰 영향’ 55.4%)
 - 그리고 취업을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장기를 미리 준비해 본적이 있다는 비율이 43.5%나 됨

- 미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J. 울프는 21세기 경제의 특징을 ‘엔터테인먼트 경제’로 규정함
 - 오락, 레저,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돼야 성과가 난다는 것임

□ 은퇴자는 자원이다*

- 고령화시대와 함께 은퇴자가 급증하면서 은퇴자들의 열정과 경륜을 재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령인력은 그동안 생산성 저하로 인식되어 구조조정과 조기퇴출의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령인력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
 - 선진국 기업들의 고령화 대응은 우선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은퇴자를 재활용하는 국내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음

<은퇴자 재활용의 주요 사례>

은퇴자 활용기업	주요 내용
홈디포 (Home Depot)	· 일에 대해 충성심 높은 장·노년층 종업원을 확보하여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함
도요타	· 재고용 시니어를 ‘숙련 파트너’로 칭하고 평균연봉의 70% 제공
마이스타-60	· 설비 설계, 기술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회사로서 입사 자격은 60세 이상
삼성 엔지니어링	· 연령에 관계없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플랜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
한미파슨스	· 은퇴기술자 재고용 플랜을 통해 건설사업 관리에 필요한 현장 전문가를 확보
남이섬(주)	· 강원도의 남이섬 유원지 운영업체로서, 은퇴자들을 채용해 조직 몰입을 높임

- 기업은 고령자를 기피 대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생산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여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함
 - 기업은 고령자의 인력 특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다양한 고용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함
 -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 활용의 효과적인 제도로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며 해고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2008.06.17)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임금피크제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고령 장기근속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체계를 설계하는 것

□ 세이공청(洗耳恭聽)

세이공청은 “귀를 씻고 남의 말을 공손하게 듣는다”는 의미로, 보통은 남이 제안한 내용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 유래는 중국 진(晉)나라의 황보밀(皇甫謐, 215~282)이 지은 《고사전(高士傳)》에서 왔다고 한다.

중국 요(堯)나라 시대에 허유(許由)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행동이 바르며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며 은둔하며 살았다고 한다. 요임금은 이런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허유는 “월조대포”(越俎代庖: 자신의 직분을 벗어나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것)라는 말을 남기고, 기산의 영수(潁水) 근처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요임금은 다시 한 번 그를 찾아 구주(九州)의 장(長)이라도 맡아 달라고 하였지만, 역시 거절하고 자신의 귀를 영수에 씻었다고 한다.

최근 우리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기업내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기업의 갈등을 확대하고 기업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의 과거형은 관리, 현재형은 소통, 미래 역시 소통”이라는 말을 남겼다. 기업경영에서 소통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소품종 다량생산체제 하에서는 관리하는 데로 따르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동료, 부하, 상사 등 기업내 구성원간에 모든 말을 소홀함 없이 경청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굉장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교양이 높다는 증거다.”

- 랄프 에머슨(1803~1882) : 미국의 사상가·시인